

# 흉악범 얼굴 공개 논쟁 뜨겁다

## 贊 “미국 등 공개...예방·공익에 보탬” 反 “가족·주변 사람 인권 침해 심각”



제 사살이다. 김원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용의자의 범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강호순의 2년여 간의 범죄 공백이 행적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공개수배가 효과를 보지 못했듯이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범죄 해결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등 공익에 보탬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중구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

져야 할 헌법정신”이라며 “외국이 공개하는 추세라고 해서 따를 이유는 없으며, 흉악범도 인권이 있고 더욱이 가족의 인권은 한층 보호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재진 호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미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상당수 학자들은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국가들은 나름의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것이며, 이제 우리 사회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신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적 흐름에 편승한 결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살인마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살인범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키는 것이 헌법정신’ 연쇄살인범 강호순(사진)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간극을 뒤흔든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반대를 일파보다 압도적으로 밀어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말부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사회적 안전장 확보 등의 논리를 내세워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공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흉악범이거나 사회적 환기가 필요할 경우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공개를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당사자를 물론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지금까지 언론도 사회적 합의나 객관성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국민의 분노와 감정의 상태를 눈치채거나 보도해온

# “모자 벗겨 얼굴 공개하라” 주민들 잔인한 범행 분노

## 연쇄살인 현장검증 첫날 3건 마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 대한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의 첫날 현장검증이 1일 경기도 군포 수원 화성 안산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은 “살인마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호순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나타냈다. 현장검증은 범행 순서에 따라 2006년 12월 13일과 24일, 2007년 1월 3일 각각 살해된 노래방 도우미 배모(당시 45세), 박모(당시 37세) 씨와 회사원 박모(당시 52세) 씨 순으로 이어졌다. 첫 현장검증은 배 씨를 처음 만난 군포시 금정역 부근 S노래방에서 오전 9시50분경 시작됐다. 검은색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풍선을 묶은 채 경찰에 이끌려 현장에 나타난 강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재연했다. 현장에는 인근 주민 50여명이 나와 “모자를 벗겨라. 개만도 못한 놈”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했으며 한 70대 할머니는 “나도 대학생 손녀딸이 있는데 세상 무서워서 살겠냐”며 불안해 했다.

강은 배 씨를 살해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를 거쳐 이 곳에서 800m 가량 떨어진 국도변에서 암매장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두 번째 희생자인 노래방 도우미 박 씨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H노래방에서 있었다. 재연 장면은 시민 200여명이 지켜봤고 “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 “피의자 얼굴을 감추니까 강력범죄가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고함도 계속됐다. 경찰은 박 씨 살해 장소인 화성시 비봉면 상하리 39번 국도 갖길로 이동, 당시를 재연했고 이곳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살해된 회사원 박 씨에 대한 현장검증도 벌였다. 경찰은 2일 2007년 1월 6일과 7일, 2008년 11월 9일 각각 남치 살해된 김모(당시 37세)씨와 연모(당시 20세)씨, 다른 김모(48)씨 등 3명 사건의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3일 일제를 검찰로 송치한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은의 범행이 의심되는 미제사건들은 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관광버스 진화 1일 오전 영암군 옥동리 인근 국도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관광버스 충돌 현장에서 영암소방서 소방관들이 버스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있다. /영암=박제진기자 pjs@kwangju.co.kr

# 탱크로리·관광버스 충돌 1명 사망·30명 부상

## 영암군 옥동리

영암에서 탱크로리가 관광 버스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일 오전 10시30분경 영암군 옥동리 옥동리 읍치 서쪽 국도 2호선에서 강진에서 목포방향으로 가던 부산98사 61×호(운전자 유모씨·44) 2t 탱크로리가 전남70사 17×호

호(운전자 황모씨·64) 관광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유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관광버스 승객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탱크로리에 역화차 2만3천원 을 싣고 영암 대불산단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충격으로 관광 버스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불이 탱크로리로 옮겨 붙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승객 전체가 안전 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도 피해를 줄이는데 한 몫했다. 경찰은 유씨가 탱크로리를 끌고 가던 중 편도 2차선 중 2차선에 정차중인 황씨의 관광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박제진기자 pjs@kwangju.co.kr

# 불법 오락실 운영 40대 등 2명 구속

##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도심의 한 모텔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정모(4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 등 2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32·광주시 광산구 일곡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차선 중 2차선에 정차중인 황씨의 관광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박제진기자 pjs@kwangju.co.kr



다중주택·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영

연쇄살인범 강호순 백과사전 등재 ○7명의 무고한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이 백과사전에 등재. ○위키백과가 1일 강호순에 대해 충남 서천군 출신으로 지난달 24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여대생을 납치, 살해한 살해 용의자로 검거된 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결국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게재. ○위키백과는 강이 서천에서 초등학교, 충남 부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철도죄로 불명예 제대했으며 1992년부터 2005년 사이 네 번 결혼해 아들 셋이 있다고 서술. ○“강호순이 키워두 등록된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는 문서’라며 삭제하는 의견을 올려 토론 중이라고 위키백과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스피치 리더십 지도자 수업 강생 집 과 정 모 집

교육 내용 [ 각 분야별 명칭상 포함 ]

- 스피치 리더십의 첫걸음
- 청중을 사로잡는 스피치 파워전략
- 스피치 말인이 말하는 생산적 말하기
- 성공하는 리더들의 파워 이미지스킬
- 무대 위의 퍼포먼스 & 스피치기법
- 창의적 교수법 / 커뮤니케이션 스킬
- 공정적인 이미지 메이킹 연출법
- 리더십을 빛내는 스피치 전략
-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기술
-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 / 고품격 대화법
- 친구를 만드는 대화법
- 내 편으로 만드는 성공회화
- 유능한 사람의 말은 다르다
- 현명한 여자의 대화법
- 유미와 비즈니스
- 다른사람을 설득하는 끌어들이는 힘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공예전문기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 무 사 권 속 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6-8446 H.010-3666-8446

구분	소재지	대/건	면적	최저가	비고	
▶구민시설	호남동	74/74	10면	4948700만	단층·중공주무수영장	
	우산동	727/1432	6792820만	30억 4300만	중공·중공주무수영장	
	오차동	281/231	7949400만	4억 1980만	우산중공주무수영장	
	남양동	290/82	5947000만	3억 8300만	단층·중공수영장	
	오차동	50/52	1941100만	9030만	중공·중공수영장	
	수기동	50/103	4292800만	2938400만	중공·중공수영장	
	양산동	362/994	4194000만	16996000만	중공·중공수영장	
	자산동	151/213	5645000만	2938000만	중공·중공수영장	
	▶주택	평생사면	848/41	1920000만	67800만	전원주택
		성남동	51/83	1978000만	1924600만	2층·역세권주택
중흥동		39/47	89800만	49600만	2층·중공주택	
중흥동		48/53	1979200만	68800만	2층·중공주택	
신기동		70/97	1999500만	1998100만	2층·신기초교인근	
동성동		24/28	87700만	49200만	2층·중공주택	
용봉동		39/47	87800만	81500만	2층·중공주택	
본촌동		89/35	88200만	49400만	단층·중공주택	
월산동		44/38	81500만	45650만	단층·월산2구역내	
중흥동		42/48	95200만	53300만	2층·효동초교인근	